

비취업 기혼 여성의 취업의사와 영향요인 분석

The Possibility of Unemployed Married Women's Entering into the Labor Market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김혜연
충남대학교 소비자·가정관리학과
교수 김순미

Home Management, Cheju National Univ.
Associate Prof. : Hye-Yeon, Kim
Consumer Science & Family Resource Management, Chungnam National Univ.
Prof. : Soon-Mi, Kim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모델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ossibility of unemployed married women's economic activity by analysing their willingness to work and possible influential factors on it. This study estimates the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dependent variable by using Binomial Probit Model. Sample are 592 two-parent househol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percentage of unemployed married women's willingness to enter into the labor market is 25.2%. Among the variables which have affected their willingness are family variables(family size, the number of children and the existence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6), personal variables(the age, education level and the past working experience) and financial variables(non-wage income, Engel's coefficient, expenditure on leisure activities and the subject judgement of their financial status). It is hard to accept those women's low willingness as is since the most crucial statistically was especially the children of 6 or less among the family variables. That is to say, more favorable conditions of the labor market and inexpensive day-care centres available would

certainly encourage married women to be more willing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as employees.

1. 문제의 제기

비취업 기혼 여성은 취업 미혼 여성이나 가족부양의 책임을 갖고 있는 기혼 남성과 달리 가정내 이차적 노동자(secondary worker)로서, 노동시장의 여건이나 가정내 상황에 의해 탄력적, 유동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예비노동자(reserved army)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 있어서 노동력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노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노동공급의 과잉상태에서 벗어나 노동공급의 부족현상¹⁾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여성노동력의 요구도가 커지고 있으며,²⁾ 여성직종 및 시간제 직업의 개발과 같은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에 기인한다. 한편 가정내적으로 가족크기와 자녀수가 감소하고 가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정설비와 시장제품으로 인해 기혼 여성의 재량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은 주부역할로서는 얻을 수 없는 사회적, 직업적 경력, 성취감이나 보상감과 더불어 이차소득을 통한 생활안정과 생활수준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어서, 기혼 여성은 경제활동을 포함한 시간배분을 고려함으로써 가정과 개인의 효용을 최대한 도모하려는 성향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거시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 내지 국가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미시적으로는 개인이나 가정이 보유한 인적 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효용과 가치가 논의되어져 왔다(김재원, 진수희, 1988; Ehrenberg & Smith, 1994; Hill, 1983).

그러나 기혼 여성은 자녀 양육 및 가사의 책임, 취업기회의 부족 등으로 인해 비취업의 상태로 있기

쉽다. 즉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기혼 여성의 비율이 더 높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은 미혼이나 결혼 초기에 참가율이 높다가 중년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전형적인 M자형을 보이고 있다(김태홍, 1993). 더욱이 가사일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은 각종 노동현황 통계나 보고서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으로써 생산 가능 인구이면서도 노동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통계연보, 인구주택센서스, 경제활동인구연보 참고).

비취업 기혼 여성은 노동시장의 여건이 개선되고 자신의 능력수준에 적합한 직업이 제공된다면 경제활동에 참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존유지 혹은 자녀양육 등의 가정내 역할이 갖는 중요성이 감소하는 생활주기단계에 이르는 등 가정내 상황이 허락한다면 비취업 기혼 여성은 시장노동을 통해 효용을 증가시키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취업 기혼 여성은 가정적으로는 그 활용과 가치가 재고되어야 할 잠재적 인적 자원인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그 불완전 활용이 개선되어야 할 유향노동력(윤석천, 1991)의 중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들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혼 여성의 취업실태(김태홍, 1993; 노미혜 외, 1992), 성에 따른 임금 및 승진 등에서의 차별(박세일, 1984; 이향순, 1988; Becker, 1971; Cain, 1986)과 취업관련 요인(양승주, 1993; Killingsworth, M.R. & Heckman, L., 1986) 등 취업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비취업 기혼 여성의 취업의사와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그 경제활동 참가 가능성

1) 공단지역에서의 일손부족, 3D노동 기피현상이나 해외근로자의 유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김진수, 1994).

2) 한 예로 사무실이나 공장에서의 자동화는 육체적인 힘보다는 단순한 기술과 지식을 요구함으로써 여성노동력의 유입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이다(탁성재, 1986).

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혼 여성의 노동력이 갖는 특징을 이해하고, 경제활동 참가와 관련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기혼 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국가의 인력정책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II.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변수

1.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지난 수십년 간 우리나라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변화의 폭이 거의 없는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산업화에 따른 경제발전이 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은 거의 50%에 이르고 있다 <표 1 참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기혼 여성의 참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혼 여성 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역전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실업율을 비교해보면 남성의 경우 3-5% 정도를 유지해왔던 반면 여성의 경우 미혼 여성의 실업율은 남성에 비해 약간 높다. 그러나 기혼 여성의 실업율은 1%미만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 특히 기혼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오랜 기간 실업상태에 머물지 않고 비경제활동, 즉 가사일에 종사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신영수, 1991). 실제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사종사 인구비율을 살펴보면 기혼 여성의 거의 전부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혼 여성이 비경제활동 인구가 남게 되는 것은 부가노동 효과보다는 실망 노동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수곤, 1976). 따라서 비경제활동 인구를 자발적 대 비자발적 경제활동 인구로 세분했던 윤석천(1991)처럼 비취업 기혼 여성의 취업의사를 분석해야만 보다 실제적인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가능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2.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모델

한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결정에는 경제활동에 참가할 것인가의 여부와 만일 경제활동에 참가한다면 어느 정도의 노동시간을 가질 것인가를 포함하게 된다. 분석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이 노동시장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어져 있다고 전제할 경우, 그 개인의 소득, 여가시간 및 노동시간에 대한 선호체계는 <그림 1>과 같이 단순하게 표시할 수 있다. 그림에서 나타났듯이 개인의 이용가능시간은 OT이며, 노동시간은 T로부터 아래 방향으로 측정되는데, 이러한 소득, 여가 및 노동시간에 대한 무차별 곡선은 U_1 과 U_2 이다. 이 때 T로부터 가로축으로 그어진 직선은 소득 제약이며, 그 각도 w_1 , w_2 는 임금율에 해당한다.

만일 이 개인이 임금율 w_1 하에서 A점, 즉 Oh_1 의 여가시간(Th_1 의 노동시간)과 Oy_1 의 소득의 조합을 선택했다고 하자. 여기서 만일 임금율이 w_2 로 증가한다면 이 사람의 최적 선택은 보다 높은 효용수준 U_2 에 있는 Bw점이 될 것이다. 즉 노동시간을 h_1, h_2 만큼 연장하고 y_1, y_2 만큼 소득을 더 얻는 선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금율의 상승이 노동공급시간을 증가시켰으므로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율은 정적 효과를 갖게 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h_i = f(w, y, z)$$

여기에서 h_i 는 노동공급시간, w 는 임금율, y 는 비

3) 부가노동 효과(Additional Worker Hypothesis)는 불황기에 가구주의 실직이 부차적 노동력의 노동공급을 촉진한다고 가정하지만, 이와 반대로 실망노동 효과(Discouraged Worker Hypothesis)에 따르면 오히려 상당수의 구직자들이 취업기회를 얻지 못하여 결국 구직활동을 단념하고 실망한 채 비경제활동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다.

〈표 1〉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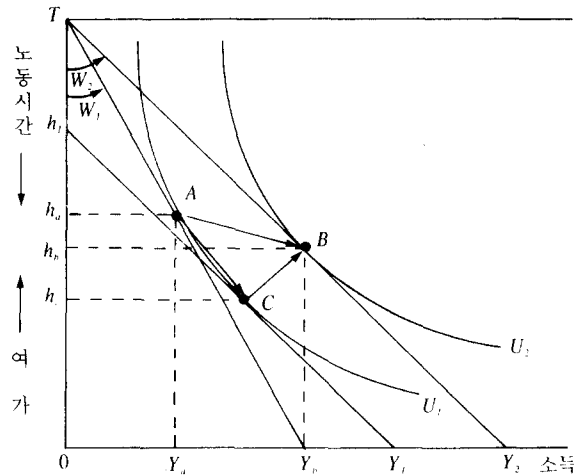
(단위 : %)

비율 성별 년도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율				비경제활동* 인구 중 가사종사 인구비율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전체	미혼	기혼		전체	미혼	기혼		전체	미혼	기혼
1984	69.4	39.5	54.2	46.0	4.8	2.2	5.6	0.8	10.0	66.8	14.2	96.2
1987	72.5	45.0	59.4	55.8	3.9	1.8	4.7	0.5	12.1	67.4	11.3	95.9
1990	73.9	47.0	60.8	60.9	2.9	1.8	4.5	0.8	12.5	66.9	9.4	96.8
1994	76.4	47.9	62.3	61.9	2.7	1.9	4.6	0.7	12.0	69.0	9.3	96.6

출처: 경제활동인구연보(1984,1987,1990,1994), 경제기획원.

* 비경제활동에는 '가사' 이외에 '통학', '연소.연료' 및 '기타' 범주가 포함되어 있음

** 여자의 경우 '기타'를 제외한 '미혼', '기혼'만의 혼인상태별 비율이므로 전체 비율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림 1〉 노동공급에 있어서 소득-여가 선호 모델

출처: 브라이언트 저, 문숙재 외(공역)(1993)을 기초로 재구성하였음

노동소득, z 는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요인을 뜻한다.

이러한 A점에서 B점에서의 최적 선택점의 이동은 실제로는 2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A점에서 C점에서의 이동으로 이는 효용수준이 변하지 않고 임금율만이 변한 경우를 나타내는데, 이를 대체효과라고 한다. 이것은 노동시간이 h_a 에서 h_r 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C점에서 B점에서의 이동은 임

금율이 그대로이고 소득이 늘어난 경우이다. 이것을 소득효과라고 하는데 이는 노동시간이 h_a 에서 h_r 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임금율이 증가할 경우 어떤 개인의 최적 선택점의 이동은 그것이 대체효과 혹은 소득효과 상충적인 크기에 의한 효용계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관계를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frac{\partial h}{\partial w} = \frac{\partial h}{\partial w} / U = \bar{U} + h \frac{\partial h}{\partial Y} / w = \bar{w}$$

한편 이러한 모델에 따르면 일정한 임금율에 대응하여 각 개인은 자신의 최적 노동공급시간을 갖고 있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은 개인보다는 고용주나 노동시간의 관행 등에 따라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기 쉽다. 또한 기혼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은 개인이 아닌 가계의 의사결정으로 가족구성원 간의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의 생산성의 비교우위가 고려된다(Becker, 1975). 이 때 보통 남편의 기대 임금율이 높고 사회적으로 취업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지므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선택은 남편의 취업과 그에 따른 소득을 전제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모델은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어떤 가계에 대해 w_1 의 임금율과 지정 노동시간 \bar{h} 가 주어졌을 때 기혼 여성이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인 b 점과 선택하지 않는 경우인 A_0 는 같은 효용곡선 U_1 상에 있는 무차별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임금율이 w_1 보다 낮아지면 \bar{h} 선은 a 점에서 만나는 w_0 의 경우가 되는데, 이 때 효용수준은 U_0 로 U_1 보다 낮아져 이 가계의 기혼 여성은 비취업을 선택하게 된다. 반면 임금율이 w_1 보다 높은 w_2 라면 \bar{h} 는 보다 높은 효용수준 U_2 를 제공하는 c 점과 만나므로 이 가계의 기혼 여성은 취업을 선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지정 노동시간 하에서 기혼 여성은 제시된 노동조건을 수락하고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러한 조건을 거부하고 취업하지 않는 양자 선택을 하게 된다.

3. 선행연구 및 관련변수의 고찰

한 개인의 경제활동 참가여부는 노동공급과 관련된 경제적 행위라는 측면에서 주로 경제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경향을 보인다.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은 인구 혹은 실업률 등의 거시적 요인들에 대해 관심을 보인 반면(Douglas, 1934, Woytinsky, 1940를 김수곤, 심경옥, 1984에서 재인용) 신가정경제학자들은 가계 내 시장노동-여가-가사노동의 세 가지 선호체제를 중심으로 한 미시적 수준에서 노동공급의 문제를 다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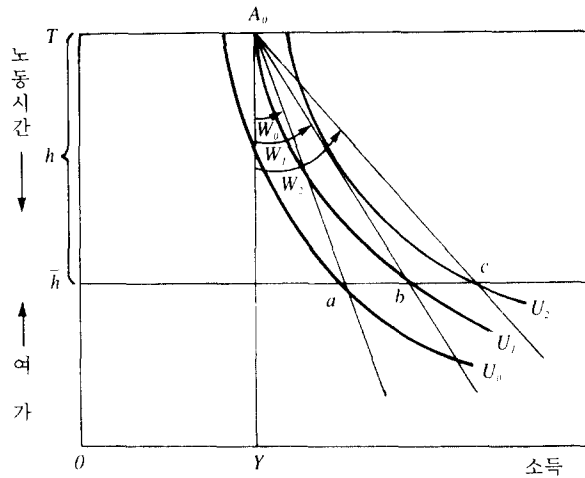
었다(Becker, 1965; Mincer, 1962). 한편 최근에는 경제활동 참가요인에 관한 개인변수의 영향력을 밝히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여정성, 1994; 최등수, 1983; 홍성우, 1983; Ehrenberg & Smith, 1994). 이러한 연구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기 보다는 가계의 결정으로 기혼 여성의 개인적 요인 뿐만 아니라 가정상황 혹은 재정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1) 가정상황 요인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실태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자녀의 출산과 관련된 가족크기 및 구성의 변화, 특히 어린 자녀의 존재가 갖는 영향력일 것이다. 자녀의 양육은 기혼 여성의 주된 책임이기 쉬우며 어린 자녀일수록 시간 집약적인 돌보기가 요구된다. Mincer(1962)에 따르면 육아는 가정생산물로서의 비중이 크므로 시장노동 및 여가가 갖는 가치보다 우선된다. Bowen과 Finegan(1969)은 자녀수와 연령분포를 사용해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설명했는데, 6세 미만의 어린 자녀의 존재는 강력한 방해요인으로 이것은 개별 분석 뿐 아니라 도시간 분석과 같은 집단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Molm(1978) 역시 전국표본 자료를 이용하여 6세 이하의 자녀의 존재와 주부의 취업지위 간에 강한 인과적 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Smith-Lovin과 Tickamyer(1978)는 자녀의 존재 자체가 기혼 여성의 취업 가능성을 낮춘다고 하였다. 김태홍(1993)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의 62.4%가 일거리가 있어도 취업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는데, 44.6%가 6세 미만의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의 이유를 들었다.

2) 개인적 요인

양승주(1993)는 1992년 여성취업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기혼 여성의 경우 40대 후반까지는 연령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정적 관계를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적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림 2〉 지정노동시간에 있어서 취업-비취업 선택모델

출처: Ehrenberg & Smith(1994), Hanoch(1980)를 기초로 재구성하였음

서 성인기 초기인 20-24세에 가장 높고 45-49세에 다시 참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진수희, 1992). 이것은 여성의 결혼 및 출산에 따른 육아와 가사부담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기혼 여성의 연령과 더불어 교육수준, 건강 등은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Becker, 1975; Ehrenberg & Smith, 1994). Leibowitz(1974)는 기혼 여성의 교육수준이 잠재적 시장임금을 상승시키므로 가정생산에 대한 대체효과로 인해 경제활동 참가율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교육으로 인한 가사노동의 생산성으로 인해 반대로 참가율이 감소되는 상반된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서구의 경우 기혼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에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Finegan, 1975; Molm, 1978). 반면 1974년 고용통계를 이용한 김수곤(1976)의 횡단면 분석이나 한국여성개발원(1986)의 여성취업실태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고졸까지는 교육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지만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이 되면 오히려 감소하는 대조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기혼여성의 교육수준과 남편의

교육수준 및 소득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저학력, 저소득층 여성일수록 경제적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게 되는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기혼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고용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건강은 노동을 할 수 있는 기본요사이므로 건강이 나쁘면 경제활동 참가 욕구가 없으며 혹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빠른 은퇴를 결심하게 된다(Burkhauser, 1980; Quinn, 1977). 따라서 건강상태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일 수 있는데, 실제로 김태홍(1993)의 연구에서 비경제활동 여성의 29.15%가 건강 때문에 일거리가 있어도 취업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기혼 여성에게 있어서 취업 경험은 주부역할이나 취업역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경험이 없었던 기혼 여성은 보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역할태도를 보이는 반면(오클리 저, 문숙재, 역, 1990), 과거 취업경력이 많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에 더욱 적극적인 경향이 있었다(양승주, 1993). Parnes 등(1975) 역시 종단 연구를 통해 결혼 후 취업지위와 결혼전 취업지위 간에 강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3) 재정적 요인

'전업주부'란 산업화의 산물로 나타난 새로운 집단(Veronica & Barbara, 1981)이다. 즉 과거의 기혼 여성들은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었지만, 최근에는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Crowley et al, 1973; Eggebeen & Hawkins, 1990). 그러나 Hoffman(1974)은 여성들이 자아실현보다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일한다고 할 때 덜 이기적인 것으로 인식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열악한 여성의 취업구조⁴⁾를 고려할 때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은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Mincer(1962), Cain(1966)은 일찍이 남편의 교육정도나 직업수준에 있어서의 평상소득, 즉 항상소득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말하자면 남편 혹은 가계소득이 충분할수록 남편과 주부의 노동분담이 보다 분업화되어 남편은 임금노동에 주부는 가사노동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된다(브라이언트 저, 문숙재 외, 1993; Becker, 1975).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상승뿐 아니라 자녀교육비 및 생활표준의 증가 등은 새로운 생활요구와 소비욕구를 초래함으로써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시키고 있다(문숙재, 김성희, 1995; 안드레 저, 한국여성개발원, 1987). 이러한 의미에서 김수곤(1971)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요인으로 남편의 항상소득보다는 준거집단의 생활수준을 따라가고 싶은 욕망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김수곤, 심경옥, 1984에서 재인용). 이것은 절대적 가계소득 이외에 지출구조와 같은 재정상태와 그에 대한 심리적 인식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III. 연구모델 및 연구방법

1. 연구모델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비취업 기혼 여성의 취업의사와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델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비취업 기혼 여성의 취업의사 = f(가정상황변수, 개인관련변수, 재정관련변수)

여기에서 비취업 기혼 여성의 취업의사는 과거, 현재 구직활동 여부 및 직장 또는 일거리가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뜻한다. 설명변수 중 가정상황변수로는 가족크기, 자녀수 및 6세 미만 자녀유무를, 개인관련변수로는 기혼 여성의 연령, 교육수준, 과거 취업경험 유무와 건강을 포함하였다. 또한 재정관련변수에는 가계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뿐 아니라 엔젤계수, 사교육비, 여가비, 총가계지출, 총부채, 주택소유 여부, 현재 경제여건에 대한 인식과 같은 지출구조 및 전반적인 가계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요인들을 포함시켰다.

2. 연구방법

1) 표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93년도 한국가구패널조사(KHPS)이다. KHPS는 가계 및 가족구성원의 사회·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 조사로서, 다단계 층화 확률표본(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 방식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추출한 일반가구 4,547 가구⁵⁾로 구성된 자료이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연구내용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 592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고 조사문항에 의해 변수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2>와 같다.

4) 여성의 노동력은 예비노동자의 성격을 갖고 있고, 노동시장에서 수평적, 수직적 격리의 분포경향을 보이며, 불완전, 부분 고용의 시간제 취업이 많다(김혜연, 1995).

5) 표본 수집의 대상이 된 행정구역은 서울(26.5), 대구(5.2), 인천(4.7), 광주(2.6), 대전(2.5), 경지(15.3), 강원(3.4), 충북(3.0), 충남(4.0), 전북(4.3), 전남(5.1), 경북(6.4), 경남(8.5)이며, () 안의 수치는 모집단의 비율(%)이다.

〈표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의 및 측정 방법
<u>종속변수</u> 취업의사	과거, 현재 구직활동 여부 및 활동가능성 1=있음, 0=없음
<u>설명변수</u> <u>가정상황변수</u> 가족크기 자녀수 6세미만 자녀유무	1=없음, 0=있음
<u>개인관련변수</u> 연령 교육수준 취업경험 유무 건강 ^a	1=고졸 이상, 0=중졸 이하 1=없음, 0=있음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
<u>재정관련변수</u>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엔겔계수 사교육비 여가비 총가계지출 총부채 주택소유 여부 주관적 경제인식 ^a	급여+상여금+자영소득+부업소득(만원/년) 자산소득+이전소득+기타소득(만원/년) 연간 식비/연간 총가계지출 과외비+예.체능교습비+기타교육비(만원/년) 교양.오락비(만원/년) 연간 총가계지출(만원/년) 금융기관 부채+사채+잔여월부+외상액(만원) 1=자가, 0=기타(전세, 월세) 현재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

*: 1. 매우 불만족스럽다, 3. 보통이다, 5. 매우 만족스럽다

2) 분석방법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 평균, 백분율 및 사분위수(quantiles)를 산출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비취업 기혼 여성의 취업의사가 이항변수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변수의 영향력은 Probit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때 모수 추정방법은 최우법(Maximum Likelihood Method) 중 Newton Raphson 방식에 따른 Binomial Probit Model을 선택하였는데, 이 방법은 일반적인 선형회귀식 추정정보보다 특이한 관찰치의 영향력이 훨씬 적어지게 한다. 자료의 분석은 Limdep program(Ver.6.0)을 이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비취업 기혼 여성 592명 중 25.2%인 149명은 취업의사가 있는 반면 나머지 74.8%인 443명은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태홍(1993)에서 비경제활동 여성 중 62.4%가 일거리가 있어도 취업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던 것과 유사한 결과로, 여성 또는 기혼 여성의 취업욕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취업기회가 제한되어 있거나 가정내 책임 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업의사와 더불어 비취업 기혼 여성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592)

범주형 변수		빈도(N)		백분율(%)		
취업의사	있음	149		25.2		
	없음	443		74.8		
6세미만 자녀	있음	251		42.4		
	없음	341		57.6		
교육수준	고졸이상	411		69.4		
	중졸이하	181		30.6		
과거취업경험	있음	287		48.5		
	없음	305		51.5		
주택소유여부	자가	354		59.8		
	기타	238		40.2		

연속 변수	빈도(N)	25%	50%	75%	평균(M)	표준편차 (SD)
가족크기(명)	592	4	4	5	4.36	0.98
자녀수(명)	592	2	2	2	1.96	0.83
연령(세)	592	31	34	39	35.91	7.06
건강(1-5점) ^a	592	3	3	4	3.38	1.00
근로소득(만원/년)	592	1200	1680	2160	1922.25	2110.88
비근로소득(만원/년)	592	200	500	900	864.50	2864.94
엔겔계수	592	0.27	0.35	0.45	0.36	0.13
사교육비(만원/년)	592	2676	2724	2784	2755.74	141.02
여가비(만원/년)	592	24	60	120	85.80	108.03
총가계지출(만원/년)	592	734.5	961	1266	1120.06	890.47
총부채(만원/년)	346	350	839.5	2000	1921.78	8251.32
주관적 경제인식(1-5점) ^a	592	2	3	3	2.75	0.84

※ 1. 매우 불만족스럽다, 3. 보통이다, 5. 매우 만족스럽다

기혼 여성의 평균 연령은 35.91세였고, 고졸 이상의 교육수준인 경우가 70% 정도였다. 과거 취업경험이 있었던 여성과 그렇지 않았던 여성의 비율은 대략 1/2 정도여서 비슷하였고, 주택소유는 자가인 경우가 다소 높았다. 또한 기혼 여성의 건강상태는 평균 3.38점이어서 건강한 편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족크기는 평균 4.36명으로서 대체로 자녀수가 2명인 부부가정으로 나타났으며, 6세미만 자녀는 없는 경우가 약간 많았다. 한편 가계의 근로소득 및 비근로소득을 살펴보면 연평균 근로소득은 평균 1,922만원, 비근로소득은 평균 865만원 정도였다. 분포상태에 따르면 근로소득의 경우 하위 25%와 상위 25% 집단의 근로소득이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있었

던 반면, 비근로소득의 경우 그 차이는 4.5배여서 비근로소득의 집단 간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 지출비 구조를 살펴보면 사교육비의 경우 하위 25%와 상위 25%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으며 평균 2,755만원을 지출하였다. 반면 여가비의 경우 평균 86만원을 지출하였는데, 하위 25%와 상위 25% 집단 간 지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를 지고 있는 가정은 전체 592 가구 중 346 가구였고 부채액은 평균 1,922만원이었는데, 집단간 편차가 상당히 컸다. 전체 가계의 지출비 중 식료품비의 지출비율에 의한 엔겔계수는 평균 0.36이어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가계는 다소 위안할 수 있는 생활수준이었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계의 재정상태는 평균

2.75점이어서 보통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비취업 기혼 여성의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설정했던 연구모델에 따라 비취업 기혼 여성의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정상

황변수, 개인관련변수 및 재정관련변수로 나누어 Probit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에 앞서 연구모델에 사용된 변수들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전체 모델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으며, 비취업 기혼 여성의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상황 변수는 가족크기, 자녀수 및 6세미만 자녀수 유무였다. 기혼 여성은 자녀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6세미만 자녀가 없을 때 취업의사를

<표 4> 비취업 기혼 여성의 취업의사에 대한 Probit 분석 결과

(N = 592)

변 수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t-ratio
<u>가정상황변수</u>			
가족크기	0.190***	0.652E-01	2.909
자녀수	-0.169*	0.758E-01	-2.225
6세미만 자녀수(있음)			
없음	0.562***	0.140	4.021
<u>개인관련변수</u>			
연령	0.183E-01*	0.878E-02	2.083
교육수준(중졸이하)			
고졸이상	0.262*	0.130	2.019
취업경험유무(있음)			
없음	-0.213*	0.114	1.869
건강	0.295E-01	0.551E-01	-0.535
<u>재정관련변수</u>			
근로소득	0.549E-04	0.536E-04	1.025
비근로소득	-0.822E-04*	0.452E-04	-1.818
엔겔계수	0.881*	0.435	2.026
사교육비	-0.170E-03	0.426E-03	-0.400
여가비	0.143E-02*	0.788E-03	1.812
총가계지출	0.982E-04	0.104E-03	0.948
총부채	-0.259E-04	0.170E-04	-1.524
주택소유여부(기타)			
자가	-0.158	0.118	-1.332
주관적 경제인식	0.134*	0.657E-01	2.038
Intercept		-0.483	
Log-likelihood		-394.600	
Restricted Log-Likelihood		-420.265	
Chi-Squared(16)		51.331***	

* $p < .05$, *** $p < .001$

갖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이것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자녀의 유무 및 특히 6세 이하 자녀의 존재 여부가 갖는 영향력을 강조해 온 김태홍(1993), 양승주(1993), Bowen과 Finegan(1969), Mincer(1962) 및 Molm(1978)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가족크기가 클수록 기혼 여성이 취업의사를 가질 가능성이 큰 것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주로 자녀를 2명 가진 부부 가정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다소 상반된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Gramm(1975)이 기혼의 전임 및 시간제 교사와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현재 비취업상태의 전직 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갖는 영향력은 자녀의 수에 따라 다르다. 즉 두 자녀와 세 자녀를 가진 기혼 여성은 한 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보다 훨씬 빨리 일에 복귀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기혼 여성의 개인관련변수 중에서는 연령, 교육수준, 취업경험 유무가 취업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은 연령이 많을수록, 중졸이하보다는 고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취업경험이 있을 때 취업의사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것은 기혼 여성의 연령이나 교육수준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김수곤(1976)과 양승주(1993)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취업경험이 없었을 때 취업의사를 갖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과거 취업경험과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의 정적 관계에 대한 Parnes 등(197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기혼 여성의 연령과 취업의사 간의 정적 관계는 연령변수가 갖는 영향력 이외에 자녀의 성장에 따른 가정내 책임 감소를 의미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변수들보다 가정상황변수가 기혼 여성의 취업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여부는 여성 자신의 능력, 자질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역할, 특히 자녀와 관련된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재정관련변수 중 기혼 여성의 취업의사와 유의한 관계를 보인 것은 비근로소득, 앵겔계수, 여가비 및 주관적 경제인식이었다. 기혼 여성은 비근로

소득이 적을수록, 앵겔계수가 높아질수록, 여가비 지출이 많을수록 그리고 주관적으로 가계의 경제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취업의사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근로소득과 앵겔계수와 기혼 여성의 취업지위 간의 관계는 가정의 경제적 상태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Eggebeen과 Hawkins(1990) 및 Hoffman(197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많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이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근로소득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거나 여가비지출 및 주관적 경제인식과 기혼 여성의 취업의사 간에 정적 관계가 나타난 결과는 기혼 여성의 취업의사가 생활유지의 측면보다 생활의 여유를 위한 경제적 동기에서도 비롯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생활표준의 증가로 인해 기혼 여성이 획득하는 이차 소득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안드레 저, 한국여성개발원, 역, 1987). 또한 김수곤(1971)이 주장한 준거집단의 생활수준을 따라가려고 하는 욕구의 중요성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혼 여성의 취업의사는 생존의 문제와 더불어 보다 나은 생활의 질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동기에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비취업 기혼 여성의 취업의사와 영향요인의 분석을 통해 이들의 경제활동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잠재적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였던 비취업 기혼 여성의 취업의사는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오히려 대부분 비취업, 즉 비경제활동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현대사회에서 여성과 관련된 두드러진 변화로 경제활동 참가 욕구 및 실제적인 참가율의 증가가 인식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여부는 부가노동 효과보다는 실망효과가 더 크며, 남성과 달리 실업상태에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 비경제활동 상태가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이러한 낮은 수준의 취업의사 표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즉 노동시장이 기혼 여성에게 적합한 구조이거나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데에서 가정내 역할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됨으로써 취업 가능성을 탐색해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나 국가가 이러한 특성의 잠재된 기혼 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보상감을 줄 수 있는 여성성종의 개발, 융통적 근무시간 등의 제도적, 정책적 유인책을 써야 할 것이다.

둘째, 비취업 기혼 여성의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었던 가정상황변수, 개인관련변수 그리고 재정관련변수 중 가장 관계가 있었던 변수는 자녀와 관련된 가정상황변수였다. 특히 6세 미만 자녀의 존재는 취업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여서 어린 자녀의 양육문제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혼 여성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내 역할이나 자녀양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동시장의 조건이나 기회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혼 여성의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가정일의 분담과 같은 가정적 노력과 자녀양육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설기관 및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셋째, 비취업 기혼 여성의 취업의사는 자신의 특성, 능력과 관계가 있는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취업 경험 유무와 같은 개인관련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또한 비취업 기혼 여성의 취업의사에는 재정관련 변수 중 가정의 생활유지 및 경제적 여유를 추구하려는 경제적 동기와 관계가 있는 비근로소득, 엔겔계수, 여가비지출 및 주관적 경제인식과 같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의 개

인관련변수는 경제활동에 참가하기 위한 인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교육수준이나 취업 기회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기혼 여성의 취업욕구는 커질 것이다. 더욱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여부는 자신의 자아실현 욕구나 개인적인 결정이보다 가정의 의사결정의 성격을 갖고 있고, 가정의 경제적 상태에 좌우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기혼 여성의 취업의사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비취업 기혼 여성은 비록 취업의사를 밝히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나 만일 가사일의 부담이나 자녀양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거나 혹은 적절한 직업기회가 주어진다면 실제로는 자신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잠재된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는 개인적 차원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생활의 질 및 복지를 좌우할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여부에 따라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효용과 가치가 달라지므로 언제, 어떠한 형태로 경제활동 참가를 할 것인가 혹은 하지 않을 것인가는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된 것이다. 따라서 취업상태를 기초로 비취업 기혼 여성을 단순히 비경제활동 인구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취업의사와 관련하여 보다 세분화된 분류범주로 구분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혼 여성의 개인적 인적 자원이 충분하고 경제적 동기도 작용하여 취업의사가 있지만, 만일 자녀의 양육문제로 인해 실제적인 경제활동 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일정 시점이 아니라 생활주기별로 기혼 여성의 취업의사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기혼 여성의 취업의사를 구체적으로, 시기적으로 파악하게 해줌으로써 취업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노동력의 추이 내지 변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기혼 여성의 취업의사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개인이나 가정적 요인 이외에도 자녀양육과 관련된 가정내 상황이나 가사노동의 가치와 같은 미시적 요인 뿐 아니라 기업측의 노동력 수요나 혹은 경제순환 등의 거시적 요인과 같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비취업 기혼 여성의 경

제활동 참가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다 다양한 변수의 선택과 정교화된 모델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경제활동인구연보」(1984, 1987, 1990, 1994), 경제기획원.
- 2) 김수곤(1976), 「노동공급과 실업구조」, 한국개발연구원.
- 3) 김수곤, 심영옥(1984),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요인분석, 「한국개발연구원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 4) 김재원, 진수희(1988),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6(2), 72-104.
- 5) 김진수(1994),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과 대책, 「국제노동질서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과제」, 한국사회정책학회 발표문, 92-116.
- 6) 김태홍(1993),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여성연구」, 11(4), 한국여성개발원, 75-109.
- 7) 김혜연(1995), 취업주부의 비용과 가사노동의 가치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8) 노미혜, 김태홍, 김영옥, 양승주, 문유경(1992),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9) 문숙재, 김성희(1995), 자녀교육 및 양육비용의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301-314.
- 10) 박세일(1984), 여성노동시장의 문제점과 남녀별 임금격차, 「한국의 임금구조」, 한국개발연구원.
- 11) 신영수(1991), 여성인력의 노동공급 행태 분석, 「여성노동시장의 중장기 전망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39-58.
- 12) 양승주(1993),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요인 분석, 「여성연구」, 11(3), 133-156.
- 13) 여정성(1994), 기혼여성의 취업과 자녀출산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2(3), 71-83.
- 14) 윤석천(1991), 여성노동력의 유희실태와 활용과제, 「여성연구」, 9(1), 39-77.
- 15) 이향순(1988), 직업구조상의 성별계층화에 대한 이론적 재평가, 「여성연구」, 6(1), 80-111.
- 16) 진수희(1992),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여성연구」, 10(1), 177-184.
- 17) 최동수(1983),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18) 탁성재(1986),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19) 한국여성개발원(1986),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20) 홍성우(1983),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요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21) 브라이언트, W. 저, 문숙재, 김순미, 소연경, 홍성희(공역)(1993), 「가정경제」, 서울: 한올아카데미.
- 22) 안드레, R. 저, 한국여성개발원(역)(1987), 「가정주부」, 한국여성개발원.
- 23) 오클리, A. 저, 문숙재(역)(1993), 「가사노동의 사회학」, 서울: 신광출판사.
- 24) Becker, G.S.(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75(229), 493-517.
- 25) Becker, G.S.(1971), *The Economics of Discrimin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6) Becker, G.S.(1975), *Human Capital*,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7) Bowen, W.G. & T.A.Finegan(1969), *The Economics of Labor Particip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8) Burkhauser, R.(1980), The Early Acceptance of Social Security: An Asset Maximization Approach,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33(4), 484-492.
- 29) Cain, G.G.(1966), The Economic Analysis of Labor Market Discrimination: A Survey, Ashenfelter, O & Layard, R.(ed). *Handbook of Labor Economics*, 1, Holland: Elsevier Science Pub., 693-786.
- 30) Crowley, J., T.E.Levitin & R.P.Quinn(1973),

- Seven deadly half-truths about women, Tavis, C. (ed), *The Female Experience*, Del Mar, Calif: CRM.
- 31) Eggebeen, D.J. & A.J.Hawkins(1990), Economic Need and Wives' Employ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11, 48-67.
- 32) Ehrenberg, R.G. & R.S.Smith(1994), *Modern Labor Economics*, Illinois: Scott, Foreman and Company.
- 33) Finegan, T.(1975), A Particapation of Married Women in the Labor Force, Lloyd, C.B.(ed), *Sex, Discrimination and the Division of Labor*,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34) Gramm, W.L.(1975), Household Utility Maximization and the Working Wife, *American Economic Review*, 65(1), 90-100.
- 35) Hanoch, G.(1980), Hours and Weeks in the Theory of Labor Supply, Smith, J.P.(ed), *Female Labor Supply: Theory and Estim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36) Hill, M.A(1983),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Consideration of The Informal Sector,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5, 459-468.
- 37) Hoffman, L.W.(1974), Employment of Women and Fertility, Hoffman, L.W. & F.L.Nye(eds), *Working Mothers*, San Francisco: Jossey-Bass.
- 38) Killingsworth, M.R. & L.Heckman(1986), Female Labor Supply: A Survey, *Handbook of Labor Economics*, 1, 103-204.
- 39) Leibowitz, A.(1974), Education and Home Produc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64(2), 243-250.
- 40) Mincer, J.(1962),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A Study of Labor Supply, *Aspects of Labor Economic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onference Stud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41) Molm, L.D.(1978), Sex Role Attitudes and the Employment of Married Women: The Direction of Causality, *The Sociological Quarterly*, 19, 522-533.
- 42) Parnes, H.S., C.L.Jusenius, F.Blau, G.Nestel, R.Jr. Shortlidge & S. Sandell(1975), *Dual Careers: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Labor Market Experience of Women*, Ohio: 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
- 43) Smith-Lovin, L. & A.R.Tickamyer(1978), Nonrecursive Model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Fertility Behavior and Sex Role Attitud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3, 541-557.
- 44) Veronica, F.N. & A.G.Barbara(1981), *Women and Work: A Psychological Perspective*, NY: Praeger Special Studies.
- 45) Quinn, J.(1977), Microeconomic Determinants of Early Retirement: a Cross-Sectional View of White Married Men. *Journal of Human Resources*, 12(3), 329-346.